



안정한 가격형성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종계농가와 육계 및 산란농가간에 병아리 가격 책정을 병아리 생산비와 일정 수익, 산지 육계가격과 계란가격 수준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계열주체와 계열농가간에는 공동체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서로간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파트너쉽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계열업체와 치킨외식업체, 채란농가와 계란상인 및 유통업체는 서로 간에 원활 정신이 필요하며, 계열업체 및 양계농가는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품질, 좋은 양계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책무이다.

대한양계협회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조정하고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사명에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월간 양계』가 앞으로는 독자를 양계인 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양계잡지로 사랑받기를 기원합니다. **양계**

##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반자적 관계로 결속시켜야…

이 제 영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양계팀장

**언**뜻 책에선가 본 월간양계 1969년 11월호 표지를 장식한 빼어난 자태의 검은 수탉과 흰닭 암탉 그림을 떠올리다가, 지난 10월호에 99데이행사에 참여한 닭 모형의 모자를 쓴 유치원 아이들을 실은 표지를 보며 그간의 연륜과 아울러 이제는 월간양계지도 창간 35년을 맞아 어엿한 장년이 된 것에 감격해 마지않을 수 없었다. 월간양계지는 명실상부한 양계협회의 대변자로써 양계인들과 함께 기쁨과 애환을 같이 해오면서 독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한된 지면에 보다 알차고 많은 내용들을싣고자 노력해 온 것을 그동안 월간양계를 접하면서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양계업이 보다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양계협회에 바라고 싶은 것은 먼저 양계산물의 그 특성상 생산과 유통·소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듯이 전후좌우가 하나로 엮여 있는 상황으로 협회에서는 관할 업무영역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보다 활력 있고 색깔이 짙은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일례로 생산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유통과 소비측면에서 대상이 되는 대형 소비처, 일배사업체, 외식체인업체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실제 양계농가에 피드백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도를 생산에 반영하는 등 상호 보완해 나가야 할 동반자적인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겠다.

다음으로 양계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그 지향점을 당당히 제시하고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대안 제시에 앞장서며 한편으로 농가들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더욱 더 공고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 양계업이 축산의 중심으로써 안정속에서 지속 가능한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여타 선진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둘러보면서 개방시대에 양계농가들이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몫이며, 또한 이를 위해 협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계인들이 급변하는 상황에 보다 수월하게 적응력을 갖추도록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경영 컨설팅의 필요성 전파와 고품질의 양계산물 생산 등이 요구되어 진다. 양계업 전반으로 볼 때 양계농가의 전체적인 레벨 업도 우선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개별농가의 생존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특색있는 양계경영의 지도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어 진다 하겠다.

다시한번 35주년 창간을 축하드리며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양계인들의 대변자로써 그 역량을 더욱 확고히 하기를 바란다. **양계**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교역할을 위해 월간양계, 양계협회 역할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강조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